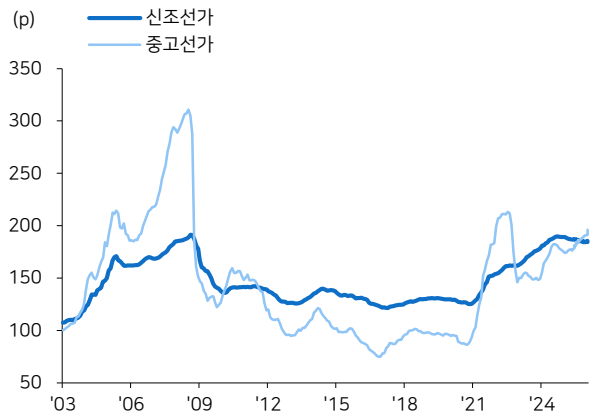
2026. 2. 5.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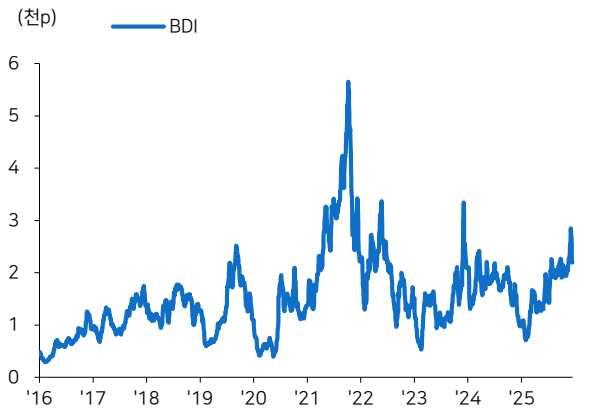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3p (-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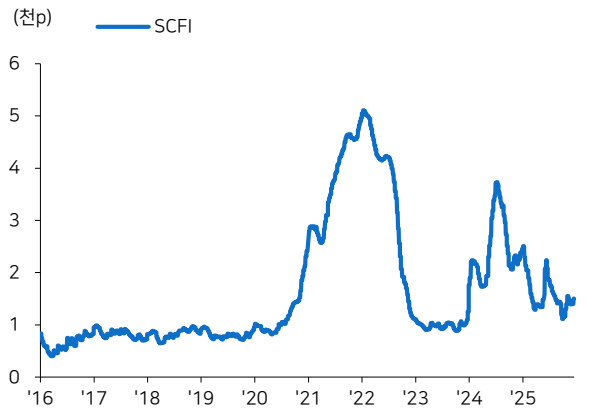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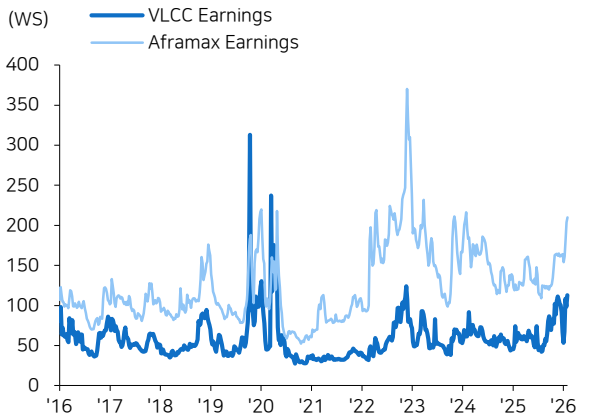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28.0p (-9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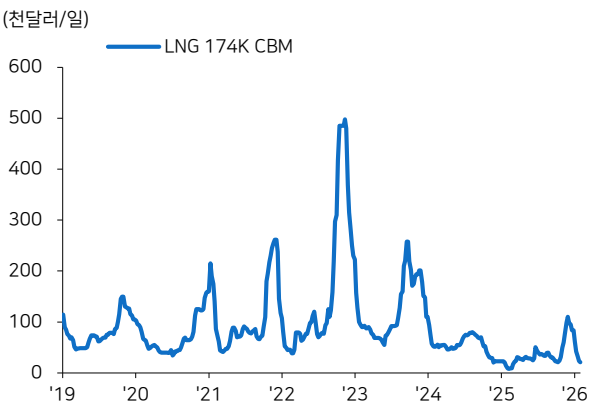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16.8p (-141.1p WoW)



VLCC Spot Rate 112.8WS (+14.4p WoW)



LNG Spot 운임 21.0천달러 (-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긴밀협력' 합의 —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짐. 양측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짐.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되고 인도 · 태평양 지역 안정과 미 · 일 · 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는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됨. (https://buly.kr/HSYormX)

HD 현대 찾은 '加 60조 잠수함 키맨' — **매일경제**

방한 중인 Stev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과 기술력을 점검하며 CPSP 추진 관련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Steven Fuhr 장관은 구축함 · 호위함 · 잠수함 · 무인수상정과 자율운항 기반 미래형 선박 개발 현황을 확인한 뒤 HD현대의 함정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알려짐. HD현대는 한화오션과과 원팀으로 CPSP 수주에 참여 중이며, 앞서 Steven Fuhr 장관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방문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 전반의 역량을 점검했다고 전해짐. (https://buly.kr/1vnedJ)

삼성중공업, 중동 AM 시장 공략...카타르 조선소와 MOU — **ZDNet Korea**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LNG 2026에서 Qatar Shipyard Technology Solutions(QSTS)와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동 지역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전해짐.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양사는 탈탄소 · 에너지 저감 · 선상 탄소포집 설비와 디지털 솔루션을 포함한 개조 및 애프터마켓 분야 협력과 함께 소형 해양 프로젝트 및 특수 목적선 신조 협력도 검토한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과 해양 개발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QSTS의 설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사업 대응력을 강화하고, QatarEnergy와 ExxonMobi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논의도 병행 중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FAey0ks)

Greek shipowner Tsakos eyes first LNG carrier newbuildings in seven years — **TradeWinds**

그리스 해운사 Tsakos Group of Companies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LNG 운반선 신조 계약을 추진 중이며 HD현대그룹에서 174,000cbm급 LNG 운반선 확정 2척과 옵션 2척을 2028년 4분기 인도 조건으로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해짐. 척당 선가는 약 24,8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Tsakos Energy Navigation이 보유한 기존 LNG 운반선 2척에 더해 선대 규모가 최소 두 배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도됨. 미국 셰일가스 수출 확대와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대체 움직임으로 LNG 시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그리스 선주 전반의 LNG 운반선 투자 재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Alm1arV)

Delfin LNG pipeline explosion under investigation — **Upstream**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Delfin LNG가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미한 부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루이지애나주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짐. 해당 파이프라인은 루이지애나주 Cameron Parish에 위치한 약 45km 구간으로, 주 해안에서 약 74km 떨어진 해역에 배치될 3기의 부유식 LNG 설비 개발과 연계돼 있으며 사고 당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됨. Delfin LNG는 연간 13.2 million tonnes 규모의 FLNG 프로젝트에 대해 조만간 FID를 예고한 바 있고,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시공사로 삼성중공업과 Black & Veatch가 포함되었다고 알려짐. (https://buly.kr/AarGbzz)

Petronas, QatarEnergy ink major gas deal — **Upstream**

Petronas LNG(PLL)이 QatarEnergy와 20년 기간의 LNG 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연간 최대 200만톤의 LNG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해짐. QatarEnergy는 현재 연간 7,700만톤 규모의 LNG 포트폴리오를 2030년 말까지 16,000만톤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Jera에 이어 Petronas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아시아 핵심 시장에서의 판매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알려짐. 해당 계약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North Field East와 North Field South 확장을 추진 중인 QatarEnergy의 LNG 증설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전망으로 보도됨. (https://buly.kr/GZz1xX8)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